부단체장 사칭 '조심'

"돈 보내라" 사기행각 기승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기관 부단체장을 사칭해 공무원들에게 돈을 송금하라는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장성경찰은 지난달 5일께 장성군청에 전화를 걸어 부단체장을 사칭한 뒤 직원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송금받아 사라진 사기범을 뒤쫓고 있다.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산 회의에 참가한 부군수 행세를 하면서 서둘러 현금 100만원을 송금해 주면 곧바로 조치해주겠다고 해 현금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께도 동일범으로 보이는 남자가 전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부교육감인데 수표밖에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면서 "현금 100만원을 보내면 즉시 조치해 주겠다"고 했지만, 직원이 따져 묻자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40~50대로 추정되는 이 사기범은 행정기관 부단체장의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광주 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대구 모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부사장 행세를 하며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기범은 강원도 등지에서 공중전화를 통해 전화를 걸었으며, 다방 여종업원들의 통장번호를 사용해 오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5일부터 광주국제평화캠프

국내외 인권운동가 100여명 참가

5·18 기념재단은 오는 15일부터 4일간 기념재단 등 광주시내 일원에서 제3회 광주국제평화캠프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의 분쟁과 NGO의 평화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평화캠프에는 스리랑카·인도네시아·동티모르·루마니아 등 국내외 인권평화단체 활동가 1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에는 인도네시아 아체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 평화운동가들과 광주인권상 공동 수상자인 아프가니스탄의 말라라이 조야(여·28), 태국의 인권운동가 앙카나 닐라파이짓(여·49)씨 등도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15일 각국 고문 후유증 당사자들의 체험을 듣고 16일 평화캠프 개막식, 17일 종합토론과 선언문 발표, 18일 5·18 전야제, 18일 광주인권상 시상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좋은 아빠되기' 열풍

'순천 좋아모' 등 온·오프라인 움직임 활발
가정의 달 맞아 카페 회원가입 부쩍 늘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오프 라인에 '좋은 아빠 되기' 열풍이 뜨겁다. 반면 이런 트렌드 속에 '좋은 아빠 스트레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레 늘고, 직장과 가정의 일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슈퍼 아빠 콤플렉스'라는 새 용어도 나왔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순천 좋아모'는 홈페이지(www.goodab.com)까지 갖추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갖고 있다. 지난 98년 5월 7명으로 출발한 이 모임의 회원은 30~50대 가장 30명. 매월 1회 셋째 주 목요일 정기모임 외에 매주 화요일 '부모 역할' 교육 활동을 한다. 모임의 캐치프레이즈는 '아버지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답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의 달'인 이달 하순엔 가족들이 함께하는 '딸기밭 체험'이 예정돼 있고, 회원 자녀의 소모임인 '청소년 보따리' 멤버들은 해남으로 문화답사를 떠난다.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는 '좋은 아빠 모임'과 '좋은 아빠 연구소' 등 공개카페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빠의 고민을 서로 털어놓는다.

네이버(www.naver.com)의 '좋은 아빠 만들기' 카페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빠 만들기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외 지역·종교·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룹 모임도 회원 가입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방법도 포털 검색창의 인기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 최근 '아버지의 날'을 앞두고 제시한 ▲함께 있기(present) ▲관여하기(engaged) ▲공평하기(fair) ▲놀아주기(playful) 등 '좋은 아빠 되기 12가지 방법'은 네티즌 사이에 퍼나르기가 한창이다.

또 단국대 이해명 교수가 지난 4월 펴낸 '자녀 성공의 Key는 아버지가 쥐고 있다'(예담 출판사)도 서점가에서 인기며, 책 내용 중 '성공 자녀를 위한 아버지 10계명'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외 김학중 목사의 '나는 몇 점짜리 아빠?' 등에도 많은 댓글이 붙고 있다.

포털사이트 엠파스가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100점 아빠가 되는 방법은?'이라는 주제의 설문도 '핫 랭킹' 3위(설문분야 1위)에 올랐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설문에는 1일 현재 3천160명이 참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0점 아빠의 첫째 조건은 '잠자기 전에 대화한 후 꼭 안아준다'(39%)로 나타났다. 다음은 ▲매사에 솔선수범한다(25%) ▲주말엔 잠시라도 같은 아이가 되어 놀아준다(12%)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한다(7%) ▲여행을 많이 다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준다(5%) ▲돈 많이 번다(4%) 등의 순이었다.

이해명 교수는 "아버지가 집에서 책을 읽으면 과외가 필요 없다"며 "식사시간에 활발히 토론하고, 자녀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라"고 권유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성공 자녀를 위한 아버지 10계명

'자녀 성공의 Key는 아버지가 쥐고 있다' 중에서

1. 하루 30분만 자녀에게 투자하라
2.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3.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4. 집에 돌아와 TV부터 켜지 말라
5. 독서습관은 아버지가 잡아주자
6. 아침식사는 가족과 함께하자
7. 자녀와 자주 여행하며 세상을 가르쳐라
8. 인성교육은 아버지가 맡아라
9. 아버지도 자녀의 진로지도 잘 할 수 있다.
10. 자녀가 홀로 설 수 있게 키워라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인 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젊은 여성들이 반소매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걷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순천 30.9도 "휴! 더워라"

日 남쪽해상 고기압 영향 올 최고치 기록

광주·전남 일부 지역의 1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올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봄날에 이처럼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달 30일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잡은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따뜻한 남서 기류를 계속 밀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첫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전날보다 1.5도 올라가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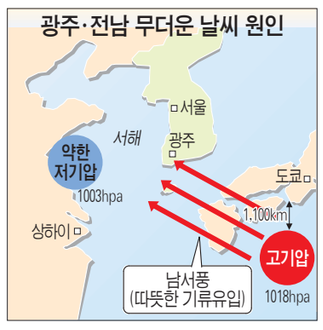
전남의 경우 ▲순천 30.9도 ▲구례 30.7도 ▲곡성 30.7도 ▲장성 30.5도 등이 평년보다 8~9도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아침 최저 기온도 광주가 14.4도, 화순과 장성이 12.6도, 곡성이 12.5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3~4도 높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그러나 2일부터는 북풍이 불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3~4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어린이 날'까지는 맑은 날이 계속되다, 6일 한 차례 비가 온 뒤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강정구 교수 4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일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집유·벌금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한경환 판사는 지난 3월 광주 하남산단 내 삼성 광주공장 앞에서 화물차량을 동원,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극동분회장 김모(37)씨와 선전부장 박모(35)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1일 선고했다.

한 판사는 "집회를 주도한 점은 인정되나, 별다른 폭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가 골프용품 실은 트럭 '취중 절도'

쌍나팔

○…고가의 골프용품을 가득 실은 화물차를 몰고 달아났던 40대가 "술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뒤늦게 자수.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노상에서 골프채 등 5천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싣고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돼 있던 박모(38)씨 소유의 화물차를 몰래 운전해 달아난 유모(41)씨를 절도 혐의로 1일 입건.

○…유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시동이 걸린 차를 보고 운전을 했는데 화물칸에 그렇게 비싼 골프용품이 실려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